

# 귀촌일기- 농촌의 봄

아침을 열며

박찬규  
진이찬방식품연구  
센터장



농촌의 봄은 희망이다. 겨울을 지나오는 동안 땅속에서는 온갖 생명이 움트고 봄 맛을 준비를 한다. 가장 먼저 잡초가 자라고 다음으로 꽃을 피우기 위한 새싹들이 올라온다. 농촌의 봄은 그래서 장관이다. 올해는 풀과의 전쟁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과수밭에는 잡초매트를 깔아 보기로 했다. 작년에 과수들이 자라고 있는 밭에 풀을 베고 또 베도 잡초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제조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무에 해가 될까봐 조심스럽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잡초매트를 깔기로 했다. 요즘의 농촌은 마을마다 사람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사람이 귀하다. 옛날 같으면 품앗이로 서로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령이라서 남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은 혼자서 논밭 일을 해나가야 한다. 잡초매트는 바람이 불면 혼자 깔기에는 역부족이다. 철재침을 박으면서 해도 바람에 날리기 일쑤다. 다행히 줄을 맞추어 나무를 심어놓아 혼자서 매트를 까는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산밭에 있는 고사리 밭의 경우는 작년

에 잡초 제거를 안 한 탓에 올 봄에 온갖 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고사리는 농약을 쓰면 바로 고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조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처음에 경험이 없어서 고사리 밭에 농약을 했다가 농사를 망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풀이 많이 나도 호미로 밭을 메고 있다. 농촌의 일은 정성을 들인 만큼 수확으로 보답해 준다. 논밭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수확이 많지만 게으름을 피울수록 수확이 적어진다. 농작물은 농민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농촌의 봄은 싱그럽다. 요즘은 온갖 과일나무들의 꽃이 피고 있다. 매화가 지고 난 후에 자두꽃이 피고 바로 옆에서는 복숭아꽃도 고개를 내민다. 귀촌 후에 약성이 있는 나무들을 심어 꽃과 열매, 잎과 줄기, 뿌리로 발효식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발효식품은 주위 사람들과 나눔으로 귀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농촌의 봄은 농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 우리 마을은 특수작물 중에서도 밤호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 하우스 속에서는 벌써 호박순이 넝쿨이 되어 오르고 있고 고추농사를 하는 집에서는 모종을 심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봄에 키운 모종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성장할 준비를 하고있는 것이다. 농촌의 봄은 들뜬에서도 오고 있다. 겨울동안 추위에 견디어 온 논보리가 벌써 배동을 하고 겨울동안 묵혔던 눈은 트랙터의

움직임이 바쁘다. 올 봄에는 산림조합에서 주관하는 산림자원 이용과 과수나무 재배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농사일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는데 단체로 가서 받는 학습 교육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작년에는 봄과 여름 사이에 비오는 날이 많아 모든 농작물이 웃자라고 과일나무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익기도 전에 낙과하는 등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그런데 일기가 안 좋은 환경에서도 과일을 정상적으로 생산한 농민 강사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필자의 무지한 상태를 반성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작물에 농약과 비료를 줄 때 그 종류나 양은 맞지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었다. 바로 마그네슘이란다. 시비할 때 적당량의 마그네슘을 함께 살포하면 원하는 양만큼 과일과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올해는 이렇게 교육받은 대로 마그네슘을 사용해 보려고 한다.

우리 농촌의 문화는 품앗이를 하면서 서로 도우며 농사일을 하였었는데 최근에는 동네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초고령화 되어 인력난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농사 준비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도 대부분이 노인인 구라 일손이 늘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장년들이 농촌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社說

### 광주시 적극행정 필요한 무등산 활성화

#### 생태관광 위한 기반 시설 필요

광주연구원이 탐방객 수가 줄고 있는 무등산 활성화를 위해 '보존 및 생태관광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연구원이 지난 2일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통해 발표한 무등산국립공원 탐방객은 지난 2018년 314만 4000명에서 2020년 245만 3000명, 2022년 243만 7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광주연구원은 탐방객 회복을 위한 생물·지질·문화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이뤄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보전지역의 지정, 고유생태계 복원, 군부대와 방송통신시설 이전을 통한 정상부 복원, 무등산국립공원 브랜드 구축, 국제보호지역 지정 확대 등이다. 특히 '무등산 국립공원의 보존 및 생태관광 강화'를 위해 1시간 내에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탐방기반 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

다. 무등산 정상부의 군부대 이전, 방송통신시설 이전, 생태복원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 친환경 전기자동차 운행 등이다. 하지만 무등산 주상절리가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되는 등의 호재에도 해결된 무등산 관련 현안은 지난해 9월 상시개방된 무등산 정상부와 일부 복원 등이 전부다. 정상부 상시개방 역시 군부대로 인해 제한적이다. 무등산 정상부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등 3개 봉우리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개방된 정상부는 인왕봉 일대다. 천왕봉과 지왕봉은 군부대가 이전한 뒤에 개방할 계획이지만 국방부 등은 현재 이전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심과 인접한 국립공원임에도 접근성 확대방안은 '생태계 훼손' 지적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무등산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도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군부대 이전 등은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더라도 접근성 만큼은 하루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개발과 보존'으로 양분된 지역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광주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할 때다.

### 보물 지정, 끝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 송광사 사천왕문 등 지정 고시

문화재청이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과 구례 화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 등 전국 9건의 산문과 불전을 보물로 지정고시했다. 이들 유적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됐지만, 당시 승군으로 활약했던 벽암각성이 중건한 유서 깊은 사찰 문화유산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유산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이들 유적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돼 후대에 전승되길 기대한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광해군 1년, 1612년 중창된 것이 확인된 유물로 건립연대가 명확해 학술적 가치가 높다. 지난 1951년 송광사 대화재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재앙을 피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거쳤지만 중창 당시의 위치와 형태가 잘 유지됐고, 부휴선사와 벽암각성과 관련된 천왕문 건축 확산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도 높다. 고려 후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례 화엄사 천왕문 또한 화려한 다포식 건물이며 사천왕상을

보안하기 위해 반자 높이를 조절하는 등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1725년(영조 1)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 영광 불갑사 천왕문도 여러 차례의 보수와 이전에도 건립 당시의 모습이 잘 유지돼 있다고 한다. 다른 사문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 기법도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17세기 이후 서남해안지역 사찰 건물의 건축적 특성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한다. 고고학부터, 역사와 미술, 공예, 건축까지 다양한 분야에 담긴 선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고, 고려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문화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는 점도 큰 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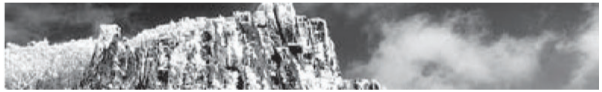
문화재청이 보물을 지정하는 이유는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당 유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까지 한마음으로 나서 이들 유물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 명소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토리텔링 등 외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 보물 지정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3일(현지시각) 대만 TVBS의 영상 사진으로 대만 동부 화론헌현의 한 건물이 이날 발생한 강진으로 일부 붕괴하며 크게 기울어져 있다. 화론헌=AP/뉴시스

#### 서석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2월, 광주는 서서히 분노로 타올랐다. 당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종료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결정 이유가 담긴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뜬금없이 광주전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는 6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여기에 담긴 '권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기한은 3월10일이었다.

공개하라는 보고서는 하지않고 의견부터 묻는다는 이야기에 지역이 들끓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넘어 기만 행위에 가까운 일이었다. 의견수렴 기간도 짧았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종합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6개월이었다.

사방에서 성명이 터져나왔고, 5.18 조사위 측은 결국 2월29일까지 개별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뒤 의견수렴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낸 보고서를 검증하는 자원봉사 인원에 필자도 참여했다. 보고서 전부를 합치니 대백과사전 3개 분량이 있었다. 그 중 왜곡이 가장 많은 군경피해를 검토했다. 어처구니없었다. 불과 며칠간 검토해서 잡아낸 심각한 오류와 왜곡만 5개가 넘었다.

군인들끼리 오인 사격했는데, 누구는 진상규명이고 누

구는 진상규명 불능이었다. 한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말이다. 밤에 사직공원을 돌던 계엄군들이 술을 마시는 청년들을 시민군이라 규정하고 쫓아가 사살했음에도 이에 대한 광주시민의 증언은 없었다. 한명의 군인이 사망했는데, 그 날은 광주시민이 모두 총기를 반납한 다음날인 27일 도청 탈환 작전이 펼쳐지던 날이었다. 광주시민들 손에 있던 총들은 모두 거둬진 상태였다. 이 사건은 진상규명 불능이다. 이해도 안되고 맥락도 없는 결과다. 조사라는 것을 하긴 했을까 싶을 정도다. 조사위가 어떤 곳인가. 광주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4년전 출범했다. 지원단을 포함한 조사 인력만 100명에 가깝고, 투입된 예산만 매년 수십억, 많게는 100억원 규모를 소요했다.

이것이 그 결과였다. 이따위를 국회에 올린다는 그 발상이 어처구니없고 화가나 보고서 보는 내내 미열에 시달려야 했다. 광주가 그리 우습고 만만한가. 광주가 가진 아픔이 '누가리고 아웅'할 만큼 갈잡았는가? 광주가 어떻게 그 긴 독재에서 버텼는지 아시는가? 정의와 진실에 대한 지독한 갈망 하나로 고사 직전에도 악착같이 저항하며 살아왔다. 이미 오월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다시 길거리로 나가야 할 모양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만드네요."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결과를 감당할 시간이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본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